

2004년도 IT국제표준화 전문가 Pool 구성 및 IT 표준화 전략포럼 선정

김정현 / TTA 표준화본부 표준총괄팀 과장
구경철 / TTA 표준화본부 표준총괄팀 팀장

1. 개요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기술융합화의 진전으로 전통산업들간의 경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기술 수용을 위한 표준의 개발과 제품·서비스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고도화 및 복잡성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경제로의 형성·변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간 표준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 표준 경쟁에서의 승패는 국가경쟁력과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WTO/TBT이후 국제표준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IT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제표준화기구와 독립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여 오던 포럼 또는 컨소시엄에서는 자신의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전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표준화기구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부진하였던 민간의 참여 활성화가 강하게 요구되어 양측간의 표준화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표준화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0여개가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TTA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경쟁력있는 민간표준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표준화활동의 핵심요소인 표준전문가의 양성과 IT표준화 전략포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 IT국제표준화전문가 Pool 구성

가. 개요

TTA는 2001년부터 표준화의 핵심자원인 IT국제표준화전문가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내 업체가 개발한 핵심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해당 기술제품이 국제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제전문가의 활동결과를 통하여 표준화 회의에 직접 참여할 여유가 없는 업체에게 관련기술의 표준화 동향을 제공하고 표준기술을 빠른 시간 내에 보급하여 국내 IT산업의 경쟁력 제

〈IT국제표준화전문가 지원 성과〉

기고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선정 전문가(명)	49	100	152	188
의장단 진출(명)	5	16	29	42
기고서 제출(건)	11	31	116	140

※ 2000년도는 ETRI에서 수행, 2003년 포럼관련 의장단 8명 제외

고를 띄우고 있다.

2004년도에는 전략적인 분야에 중점지원을 하기 위하여 IT표준화전문가 Pool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결과를 위하여 『2004년도 IT표준화전문가 인력양성위원회』(4월 6일(화))를 통하여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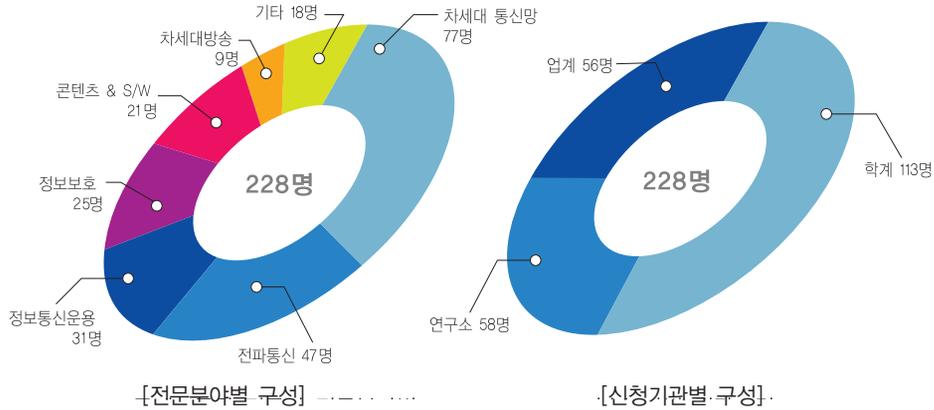
인력양성위원회에서의 평가는 '03년도 활동실적평가 및 '04년도 전문가 신청서를 기반으로 어학능력, TTA 위원회 및 국제표준화 회의 참여, 국제회의 기고서 반영실적,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의지 및 가능성 등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총 228명(선정전문가 208명, 명예전문가 18명, 위촉전문가 2명)이 확정되어 2004년도 다음과 같은 임무에 따라 "IT표준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TTA표준화 위원회에 참여
- 분야별 최신정보 분석 및 소관분야의 신규용어 정리
-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관련 표준화회의, 관련 분야 행사, 학회/관련단체 세미나 등에서 최근 국제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발표
- TTA 저널, IT Standard Weekly, TTA Web 등을 통하여 최신정보 보급·확산
- 애로·첨단기술 관련 중소기업 위주의 표준컨설팅

명예전문가의 경우 현재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의장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일정부분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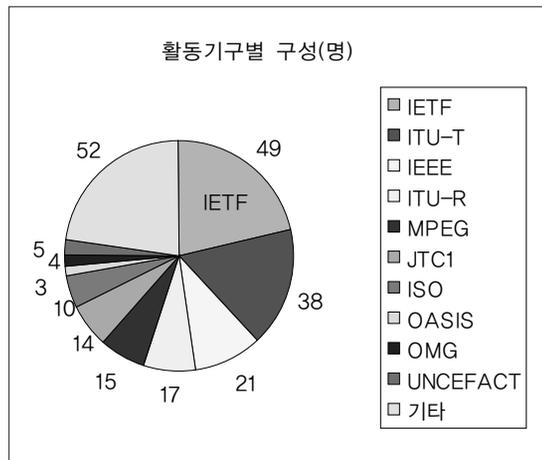
나. 활동분석

선정된 '04년도 228인(<http://www.tta.or.kr> 명단참조)을 신청기관별, 지원분야별, 활동기구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활동기구별 구성

지원분야	인원(명)	구성비
IETF	49	23.1%
ITU-T	38	17.4%
IEEE	21	8.2%
ITU-R	17	8.2%
MPEG	15	6.7%
JTC 1	14	6.2%
ISO	10	5.1%
OASIS	3	1.5%
OMG	4	2.1%
UN/CEFACT	5	2.5%
기타	52	21%



3. 2004년도 IT표준화 전략포럼 선정

가. 개요

국제 사실표준화 활동에 적극 대응하며, 국내 관련 전문가들의 정보교류, 협력 등을 도모하고, 신속한 국내표준안 개발을 위하여 TTA에서는 전략분야별 IT표준화 포럼을 200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 포럼 지원 예산 및 포럼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지원 예산	4,3억	9,2억	12,3억	12,75억
포럼 지원수	10개	22개	28개	31개

2004년도 전략포럼 선정은 『IT표준화 전략포럼 선정위원회』(4월 6일(화))에서 결정하였다. 선정을 위한 평가는 2월 전략포럼 수요조사를 통하여 신규 7개의 포럼을 대상으로 발표 평가로 진행되었으며, 기존포럼은 2003년도 활동실적 및 평가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서면평가로 이루어졌다.

선정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및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포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9대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이라는 큰 명제하에 국가 정책부합성, 국내표준 제정의 시급성, 국제표준 제안성, 등 3개의 분야 5개의 평가기준과 기존포럼과의 유사성 검토를 통하여 계속 28개 포럼, 신규 3개의 포럼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나. 2004년도 IT표준화 전략포럼

〈2004년도 IT표준화 전략포럼〉

구분	분야	포럼명	수행기관	
계속	인터넷	1. IPv6 포럼 Korea	OSIA	
		2. 인터넷텔레포니(VoIP) 포럼	OSIA	
		3. URI 표준화 포럼	KRNIC	
		4. 무선인터넷표준화 포럼	OSIA	
		5. Web Korea 포럼	NCA	
	전자상거래 및 전자보안	6. 한국 전자지불 포럼	한국전자지불산업협회(KEPIA)	
		7. 인터넷보안기술 포럼	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8.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 포럼	대한상공회의소	
		9. 생체인식 포럼	한국정보보호학회	
		10. BPM Korea 포럼 (구 : WABA 포럼)	한국인터넷정보학회	
	방송 및 멀티미디어	11. 차세대방송표준 포럼	방송공학회	
		12. MPEG Korea 포럼	OSIA	
		13. 한국디지털케이블포럼	KDCF	
	정보가전	14. 홈네트워크포럼(구 : 디지털홈 포럼) * 홈네트워크시큐리티포럼과 통합	홈HN 산업협회	
		15.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 포럼	KADO	
	통신망 및 전송기술	유선	16. 광인터넷 포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7. 그리드 포럼 코리아 * 클러스터컴퓨팅포럼과 통합	KISTI
			18. 광대역통합망(BcN) 포럼 (구 : 차세대통합네트워크포럼)	네트워크연구조합
		무선	19. 한국 이더넷 포럼	OSIA
			20. 초고속무선LAN 포럼	KTOA
			21. 한국 UWB 포럼	RAPA

구분	분야	포럼명	수행기관
		22. LBS 표준화 포럼	KAIT
		23. 텔레매틱스포럼 * GNSS 전략포럼과 통합	텔레매틱스산업협회(KOTBA)
	S/W	24. S/W컴포넌트표준화 포럼	KCSC
		25. S/W 표준화포럼 (구)공개S/W활성화포럼	KIPA
	콘텐츠	26. DRM 포럼	정보처리학회
		27. 디지털콘텐츠포럼	한국디지털콘텐츠산업협회
	부품	28. SoC 포럼	IT SoC 협회(ITSa)
신규	무선통신	29. RFID Korea 포럼 * 유비쿼터스IT표준화포럼과 통합	NCA
		30. 차세대이동통신포럼	NGMC Forum
	콘텐츠	31. 모바일 3D표준화 포럼	정보처리학회

※ 약어

- BPM : Business Process Management
- GNSS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NGMC : Next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SoC : System on Chip

4.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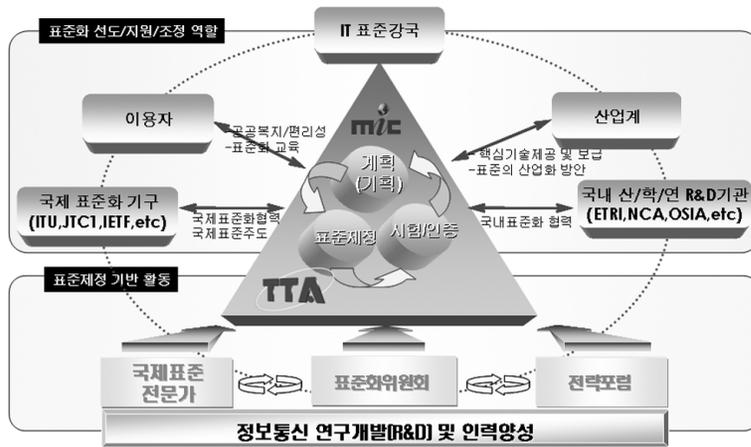
현재 IT기술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 요구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표준도 발전하고 있다. IT 기술표준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져 가고 있으며, 보다 신속한 표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기술이 표준을 선도한다기 보다는 표준이 기술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표준화 활동은 장기적으로 기업 또는 국가의 전략적 측면에서 지속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IT산업이 사회기반적 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IT표준화를 위한 전략수립, 연구개발, 표준제정, 시험인증 등 일련의 표준화 사이클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민간 표준화활동 강화를 위한 전문가의 양성, 전략포럼의 육성 등은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후 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인 8-3-9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각 산업특성에 맞는 적시의 기술개발과 이를 통한 IPR 획득 및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선순환 발전구조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하여, 세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도

구로서의 IT표준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TTA는 이와 같은 상황을 적극 수용하여 그림과 같은 국내 표준화자원의 유기적 결합 및 연계를 통해 향후 명실공히 국내 표준화활동의 최고봉으로서, 국내의 표준화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것이다.



[그림] 국내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와 전략

